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3월 19일  
제1940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 9,5-7)



〈소경을 치유해주는 예수님(부분)〉, 11세기, 벽화, 성 안젤로 대성당, 카푸아, 이탈리아

## 사순 제4주일 (가해)

**제 1 독서** 1사무 16,1-7.10-13L |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화답송 시편 23(22)**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제 2 독서** 에페 5,8-14 |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요한 9,1-41 <또는 요한 9,1.6-9.13-17.34-38>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sup>6</sup>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sup>7</sup>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sup>8</sup>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sup>9</sup>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3</sup>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sup>14</sup>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sup>15</sup>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sup>16</sup>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sup>17</sup>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sup>34</sup>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sup>35</sup>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sup>36</sup>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sup>37</sup>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sup>38</sup>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복음 묵상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제2독서인 에페소서의 이 말씀은 마치 복음서의 주제를 요약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복음은 빛과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빛’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빛과 어둠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을, 반대로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빛이 없는 상태에, 곧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오늘 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동시에 애써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서 일으키신 표징과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원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는 빛을 선물받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대조되는 이는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멀지 않은 이들이지만 빛을 거부합니다. 다른 의미로 눈은 뜨고 있지만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눈먼 것은 죄의 결과이고, 눈먼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리사이들에게는 죄의 여부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예수님 또한 바리사이들의 눈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만을 생각하고 죄를 찾는 눈에는 죄가 보일 뿐입니다. 빛을 생각하고 빛을 찾는 사람에게는 빛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에페 5,9).

(허규 베네딕토 신부)

복음과 성화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요한 9,7)



이 작품은 성 안젤로 대성당의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소경에게 다가가  
손으로 눈을 어루만지며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이 기적은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정용모 신부, 복음을 담은 성화〉

사순 감사송 8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송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미주 동중부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가 지난 3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  
에서 열렸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교회운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웹 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5기 어머니학교 참가자들

## 코로나 이후 시들어 가던 신앙에 불씨를 지펴준 어머니학교

-변화·성장을 위해 나를 먼저 깨뜨리는 시간-



〈제5기 어머니학교 참가자들〉

제5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가 미주 동중부 성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NOVA 4-H Educational and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다.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는 신앙 안에서 성가정의 모델을 통해 건강한 어머니상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정 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는 교회운동이다.

2019년에 준비했던 제5기 어머니학교는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개강이 취소되면서 오랜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어머니학교에 관한 모든 기억들이 잊혀지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힘을 주셨다. 2022년 봄부터 COVID-19이 조금 수그러짐을 계기로 2022년 10월 29일에 조심스레 제5기 어머니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봉사자들 모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봉사자 중에 두 자매님과 한 형제님이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씩 불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본당 주임신부님의 파격적인 홍보와 전격적인 지원으로 수강 신청 두 번째 날 선착순 40명 모집에 우리 본당에서 34명이 등록되었다. 모집 정원 40명의 수강자가 순조롭게 확보되었고,

대기자들도 10명이 확보되었다. 2011년에 시작한 어머니학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봉사자들 중에 5명의 환자가 생겼고 그중에는 어머니학교 조 봉사자로 담당해야 할 자매님이 4명이나 되어 걱정이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봉사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았다. 봉사자들의 빠른 치유를 주님께 기도하며, 봉사자들 모두 주님 앞에서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제5기 어머니학교는 39명의 수강자와 두 분의 수녀님이 참석하였다. 본당 지도신부님의 말씀의 전례와 봉사자 축복으로 시작된 어머니학교는 강의와 주제발표, 그룹나눔, 요가체조와 그룹댄스 등으로 빽빽한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오랜 COVID-19 이후 시들어 가던 엄마들의 신앙에 신앙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수강자들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나를 찾아보고, 내 안에 잠재된 역량을 찾아 변화된 엄마로 그들의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봉사자들도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시들해졌던 봉사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다.



△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참가자들



△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쓰기를 하고 있다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사랑, 배려와 노고의 결실을 주님께 봉헌하는 소중한 감사한 주말이었으며, 수감자들과 봉사자들이 일치되는 따뜻하고 행복한 피정이었다.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님은 감사축제 미사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실천하는 사랑의 가정”을 이뤄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녀의 만남은 사랑이 바탕이며, 부부간의 애뜻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에 몰두하고 자녀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도 부부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돕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고 부모의

따라쟁이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스텔라 수녀님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함축된 표현을 해주셨다. 이향금 율리야나 자매는 “많은 봉사자님들의 사랑과 노고가 있었기에 코비드 이후로 시들해져 가던 엄마들의 신앙의 불씨를 다시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나누고 깨닫고 울고 웃으면서 마음이 힐링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학교 피정은 저희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남모르게 아파했던 불안불안한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어 성가정의 길로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정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김현주 벨라베타 자매는 “어머니 학교에서 은총 충만히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맘먹은 것과 다르게 속상한 현실에 부딪치더라도 힘내어 미소 지으리라 결심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진 신부님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세상으로 파견되는 행복한 가족들에게 “지난 2~3개월간 봉사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이기에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다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가톨릭의 어머니임을 인지하면서 하느님 사랑, 성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즐거운 그룹 댄스



# GROW IN FAITH AND FRIENDSHIP. BUILD VIRTUE. HAVE SOME FUN!

## 2023년 알링턴 교구 여름 성소 캠프



2023년 알링턴 교구 성소국에서 주최하는 CYO 남녀 학생 대상 여름 성소 캠프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사제, 부제, 신학생 및 수사, 수녀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 특강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을 하면서 본인의 '성소'에 대해 더 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 대상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Grades 9-12 for the 2022-23 academic year)

### 기간

**Quo Vadis SUMMER CAMP** (남학생) :

July 9-13, 2023

**FIAT SUMMER CAMP** (여학생) :

July 16-20, 2023

### 장소

Mount St. Mary's Seminary in Emmitsburg, MD

(16300 Old Emmitsburg Rd, Emmitsburg, MD 21727)

### 신청

<https://www.arlingtondiocese.org/vocations/vocation-camp-lottery/>

- 신청 기간 : 3월 1일(9:30am) - 3월 31일(11:59pm)
- 참가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4월 13일 경에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



### 비용

\$280/camper (성소후원회 전액 후원)

### 문의

성소후원회 김만식 재권 요셉 (703) 403-1185



바로 신청하기

